

골롬반 선교

2021년 겨울호

vol. 120

“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마태 18,22)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잘 기억하기



안인성 패트릭 신부·본지 편집장

한반도에 존재하는 난해하고 고도로 군사화된 분단 현실의 맥락에서 고작 화해의 관점을 말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 눈에는 매우 순진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에 대한 다수의 지배적인 이야기 때문에 화해 이야기는 대개 무시되고 얼버무리집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한국천주교회는 현재도 진행 중인 분단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화해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교회의는 민족화해를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여 한반도의 슬프고도 골치 아픈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화해가 아닌 것을 진술하는 편이 이해하기 더 쉬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화해의 참 의미에 관하여 잠시 생각해 보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화해란, 있었던 일을 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쯤으로 이해합니다. “마음에 두지 말고 그만 잊어버려”, “그냥 놔두라”, “과거에 사는 것을 그만두라!” 이런 말을 우리는 자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발언들은 대부분 잘못되었으며 결국 상처와 절망감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의학적으로 비유하자면, “그만 잊어버려!”는

부러진 다리를 무시한 채 고통을 무디게 하기 위해 진통제만 복용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이 문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마태 18,21-22). 그저 좋은 마음으로 참아 주고,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말씀은 나와 다른 사람을 참된 인간으로서 인정하고 맞아들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화해의 문을 여는 열쇠는 잘 기억하는 우리 능력에 있습니다. 잘 기억하는 것은 상처와 고통 속에 머물며 억압에 갇혀 복수할 기회를 찾는 것과 다릅니다. 잘 기억하는 것은 고통을 올바르게 인정하면서 의식적으로 자유롭게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방어적 태도와 복수를 거부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상대방의 인간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잘 기억하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무엇보다 나의 인간성이 타인의 인간성을 (사람 인에서 보듯이) 뒷받침할 뿐 아니라, 들어 높인다는 심오한 믿음을 뜻합니다. 타인의 인간성을 드높이면 나의 인간성도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화해를 위하여 잘 기억하려는 노력은 십자가에 못 박힌 처형을 의식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화해는 완전히 실패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가능성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고 신뢰하는 바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화해가 실패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잘 기억해서, 화해하기를 선택”하는 일은 우리 앞에 주어진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번 겨울호에서는 한반도 화해를 위한 여정을 이미 걷고 있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골롬반회 남승원 신부가 평화사목을 소개하였고, 예수회 김연수 신부는 광복 이후 북한의 종교 현황을 살피면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한 고민과 성찰을 나누었으며, 살레시오회 정현희 수녀는 무연고 탈북 청소년들을 동반하며 느낀 기쁨을 들려주었습니다. 특별히 세 명의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 분투기를 들을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이 밖에 수원교구 정진만 신부가 루카 복음서를 알기 쉽게 소개했고, 노혜인 선교사는 생태적 회심의 삶을, 류선종 신부는 대만 선교 이야기를 전했으며, 골롬반회 총장을 지냈던 토마스 머피 신부가 한국 선교를 통해 받은 은총의 열매를 나누었습니다.

복된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평화가 한반도를 비롯한 이 지구와 그 안에 사는 피조물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해피 뉴 이어!



- 02 마음을 여는 글 | 안인성 패트릭 신부
잘 기억하기
- 04 한반도 평화
골롬반회의 평화사목
남승원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 06 “북한 신자는 진짜인가요?”라는 질문,
필요할까?
김연수 스테파노 신부
- 08 정착은 끊임없는 배움으로 완성된다
이혜진 유스티나
- 10 천노엘 신부님,
꿈사리공동체와 북한에 함께 가요!
정현희 스텔라 수녀
- 12 끝까지, 함께하시는 주님
강미진 데레사
- 14 제 발에 등불, 저의 길에 빛
김경화 요안나
- 15 그림 목상 | 안재선 제이슨 신부
한반도 평화
- 16 대만 이야기 | 류선종 안드레아 신부
그 빛으로 말미암아
- 18 성경과 데이트 | 정진만 안젤로 신부
사복음서 산책③ 루카 복음서
- 20 평신도선교사 | 노혜인 안나 선교사
생태적 회심으로 초대
- 22 추모 | 구요비 옴 주교·임명미 임마쿨라타 후원회원
진요한 신부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 24 한국 선교의 은총 | 토마스 머피 신부
선교의 열매
- 26 후원회
- 28 골롬반소식

골롬반회의 평화사목

남승원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2002년 사제서품을 받고 페루에서 선교하였다. 한국지부 신학원장, 성소국장, 부지부장을 역임했으며, 평화사목국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민족화해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 방문 때, 필자 뒤로 북한 양강도 해산시가 보인다.

2014년부터 한국지부에서 지역사회와 지역교회에 밀접한 새로운 사목을 논의하는 가운데 당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동북아 평화에 대한 사목적 참여를 추론했고, 2015년 지부 총회에서 본격적으로 평화사목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평화사목은 남한과 북한과 교회 안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인도적 도움을 주고,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과 그 자녀 또는 혼자 정착하게 된 청년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동반하는 사목입니다. 또한 ‘평화3000’이라는 단체를 통해 북한 조선카톨릭교회 협회에 묘목 4,000그루(2018년), 아동 방한복 1,000벌

(2019년) 등등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도움을 전달하였습니다. 한국지부에서는 화해·평화 월례 미사를 봉헌하고,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활동으로 매 주일 오후에 국정원 천주교 소개 방문, 매월 한 번 안성하나원(어린이, 청소년, 성인 여성)과 화천하나원(19세 이상 성인 남성)을 방문하였으며, 각 그룹홈과 이탈주민 개별 방문을 해왔습니다.

북한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북한과 탈북인들에 대한 개인적 관심과 열정으로 사목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진 북한식 사고방식과 행동 또는 정착 과정 중에 보인 이해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무력감과 이질감을 느껴 실망하거나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온 이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적응하기를 바라기 보다는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북한 사회와 문화에 관심을 두고, 그들을 이해하고 배우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긴 호흡으로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한반도의 화해와 치유, 평화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한반도 평화 정착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험뎠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



한반도 종전 평화 선언 캠페인 서명 홈페이지
endtheKoreanwar.net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주최 행사에 참가했을 때(DMZ 평화의 길, 2017년)

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듯이 녹이고 배불리 먹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야고 2,14-17).

한국전쟁 70주년이었던 2020년부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6월 25일)에 남자/여자 수도회·사도생활단과 함께 각 교구가 정한 장소에서 오전 10시 30분에 미사를 동시에 봉헌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천주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한국전쟁과 북한교회에 대해 과거 희생의 기억에만 머물거나 과거의 것을 되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민족 화해와 치유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이루고,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이탈주민들이 서로 보듬어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기관 방문과 개별 만남은 어려워졌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 개인이 지켜야 할 사항들과 마스크와 손 소독제 분배 등 북한이탈주민들

이 놓칠 수 있는 정보나 정부 공문을 개인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자주 전달하여, 정보나 도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남한 사람들과 함께 개인위생과 방역에 참여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었습니다. 국내 상황이 조금 나아졌을 때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북한 이탈 청년들을 위한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도 있었습니다. 또, 인터넷 영상 모임을 통해 지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신부님들, 수녀님들과 더 자주 대화할 수 있었고 각 그룹홈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을 골롬반 본부로 자주 초대하여 골롬반 선교사들과 후원회원들과 함께 월례 미사, 골롬반 행사, 친교 시간이나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과 북한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그들을 직접 만나면서 실질적인 관심으로 변화하였고, 이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더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평화 관점에서 평화적, 인류적 공존을 위해 더 필요한 평화사목 활동을 지속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

“북한 신자는 진짜인가요?” 라는 질문, 필요할까?

김연수 스테파노 신부

—
예수회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북한학 박사이며,
책 『북한 가톨릭교회의 어제와 오늘』을 썼다.

필자의
공동체 경당에 있는
용서의 십자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사진 제공: 김연수 신부

2018년, 남북 관계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싹튼 가운데 화해와 평화, 북한 복음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갈림길에서 북한의 종교 정책과 상황을 이해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며 이를 통해 북한 선교 방식에 대한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방 직후 북한 공산 정권은 ‘탄압과 회유’라는 이중적 종교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1945년 ‘북조선 불교도총련맹’을 시작으로 1946년에 개신교 단체인 ‘북조선기독교도련맹’, 1947년에는 ‘천도교 북조선 중무원’이 만들어졌고, 이들은 당국의 정책을 지지하고 적극

적으로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천주교는 당국이 평양 교구장 홍용호 주교에게 협력을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반공주의를 표방하던 가톨릭교회는 단체에 가입하고 무신론자에게 일시적이거나 외면적으로라도 협력하는 것은 교리에 어긋나고 신앙을 배반하는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북한 종교 정책에 획기적 변화가 이뤄진 것은 1988년입니다. 추측건대 서울올림픽, 1989년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씨, 문규현 신부의 방북이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

니다. 특히 문규현 신부와 임수경 씨의 활동은 북한 내 천주교 부활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들이 가졌던 종교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꿔 놓았고, “신부나 목사는 미국 앞잡이 노릇만 하는 줄 알았는데 나라와 통일을 위해 감옥까지 가며 애쓰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종교에 대해 고심하고 종교 활동에 조금이나마 전향적 자세를 취하는 이유는 북한에 종교가 없다는 주장은 국제사회의 조롱과 비난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자각하고 종교를 대남교류와 관련해 정치,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종교 활동이 더 이상 북한 체제 안전에 위협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에는 천주교, 개신교, 조선 정교, 불교, 천도교 등 단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재미언론인 조광동 씨는 저서 『더디 가도 사람 생각하지요』에 1991년 북한을 방문했을 때 만난 천주교 신자들의 증언을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김은주 엘리자베스, 차성근 율리오, 동희만 다니엘, 고영희 수산나와 좌담회를 가졌다. 차성근은 김일성종합대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성당이 설립되면 사제가 되라는 어머니 유언에 따라 서른이 넘는 나이에도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고아가 된 자신을 키워준 천주교 신자 마동일 선생 등과 함께 가정에 모여 기도를 드렸다. 동희만은 어머니가 1975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일요일이나 무슨 일이 있으면 대여섯 명의 여자분들과 함께 모여 기도를 하였다.”

북한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전쟁 후에도 신앙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자녀들에게 천주교 집안이라는 사실을 밝혔거나, 자녀들에게조차 비밀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점은 박해시대를 유추해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부모가 유언에서 신앙을 말해 주고 때가 오면 성당에 나가서 세례를 받으라고 당부한 경우도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북한 천주교 신자들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



한국 천주교 주교단의 평양 사목방문 중 장충성당에서 드린 미사(2015년) 사진 제공: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활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 상태에서 개인적인 신앙을 유지하는 독특한 상황을 견뎌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조선가톨릭교협회 결성과 장충성당 건립이 북한 교회의 새로운 출발을 보여 줬지만, 남한 교회에서는 이 단체가 북한 당국의 통제를 받는다는 이유로 그 진정성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는 북한을 방문해 미사를 봉헌한 외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겪는 갈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북한 교회가 30년간 매주 종교 행사를 거행한 사실, 방문자들에게 예비자 교리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일 등을 볼 때, 계속 예비자를 모집하고 교리를 가르칠 계획이 있는 것이기에 남한 교회는 북한 교회의 성장을 위해 재건주의적 사고보다는 북한 신자들과 협력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 성장에 필요한 것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필자의 강연을 취재하여 정리한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기사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출처: 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40

어느 탈북 대학생의 남한 정착기

정착은 끊임없는 배움으로 완성된다

이혜진 유스티나(가명)

남한 사회에 정착하기란 쉽지 않다. 정착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한국의 정치, 문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육은 어떤지, 어떤 인재상을 대한민국이 원하는지 기본적으로 아는 정도라면 정착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북한을 떠나올 때, 한국에 관해 아는 것은 드라마에서 본 게 전부였다. 드라마 속 한국은 너무 잘살았고, 부자와 평민이 항상 어울리며 살았다. 한국에 도착하기만 하면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한국으로 왔다. 다만 드라마에서 학생들이 엄청난 경쟁률 속에서 공부하는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었다.

하나원을 수료한 후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그룹홈에 들어갔다. 공부를 할 수 있어서였다. 내가 살아온 국가와 내가 살아 나가야 할 국가의 차이점을 알고 싶었고, 북한에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이유도 있었다. 배운 모든 것을 거의 잊은 상태여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며 중학교 과정부터 고등부, 수능 공부까지 했다. 사회, 영어, 미술, 도덕

등은 전혀 배워 보지 못한 영역이었고, 국어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처음 체험했다. 문과 과목보다 오히려 수학, 과학이 쉬웠다. 학원에서 처음 모의고사를 봤을 때 내 국어 점수는 평균 10점에서 25점 사이였다. (나중에는 반에서 제일 잘하는 학생들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렇게 공부했어도 여전히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았고,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았다.

한국 친구들과 달리 나는 모든 것이 새롭고 어렵기만 했지만,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게다가 합격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꿈만 같았고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등교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 매 수업에 임했다. 과제물은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 방법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른 채 그냥 내 생각대로 해 나갔다. 하다가 정말 모르는 부분은 (우리를 도와 주시는) 신부님을 만나 가끔 물어보기도 했다. 수업 중에 대부분 학생들은 노트를 꺼고 교수님 강의를 실시간으로 타이핑했지만, 나는 그렇지 못했다. 한쪽으로는 듣고 이해한 내용을 바로바로 적어야 하는데 그럴 능력이 안 되었다. 오로지 펜과 학습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강의 중에 들리는 용어는 들어

보지 못한 것이고, 교수님은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다. 나는 교수님 강의를 녹음하여 집에 가지고 와서 다시 듣고 노트에 필기를 하며 새내기 첫 학기 시험을 준비했다. 일일이 손으로 적으니 분량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 그때를 돌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열정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다.

한 학기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조금 허무하기도 했다. 수업 내용은 심도 있게 들어가기도 나열하는 방식이었고, 그토록 열심히 외워서 A학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험이 끝난 뒤 몇 달 지나니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었다.

그래도 1학기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부터는 그렇게 손으로 시험공부를 하지 않았다. 수업 자료 파일을 미리 내려받아서 인쇄한 것을 노트 삼아 그 위에 필기를 하니 훨씬 쉬웠다. 1학기 때는 높은 성적을 받지 못했지만, 나는 그 점수에도 만족했다. 한국에서 학교 시험을 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교수님이 어떤 답을 원하고 어떤 형식에 맞게 답을 써야 하는지도 몰랐다. 겪어보니 시험 보는 방식도 정말 다양했다. 객관식, 주관식, 서술형, 단답형, 논술형, 논변 형식 등등. 한국 학생들

은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고, 정규 교육을 통해 웬만한 상식을 갖춘 상태에서 대학 수업을 듣기 때문에 나와는 차원이 달랐다. 내가 거의 처음 듣는 용어,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에 그 친구들은 과제를 하고, 시험공부를 했다. 그렇게 그들과 다른 출발선에서 시작했지만, 차츰 시험도 잘 보게 되어 한국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는 것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어쩌면 갓 한국에 와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의 무지함과 부족함을 점점 더 많이, 더 자주 느낀다. 또 해야 할 공부가 무수히 늘어난다.

그렇지만 그렇게 도전한 덕분에 한국인이라고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 세계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오늘의 내가 형성되어 뿌듯하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대학교에 입학하여 불안하고, 힘든 부분이 많은 친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배들도 다 비슷하게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지금은 잘 살아가고 있으므로 용감하게 헤쳐 나가길 바란다. 언제든지 내 도움이 필요할 때 부족하지만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

DMZ 평화의 길 순례에 참여한 청년들(2018년)
사진 제공: 남승원 신부

천노엘 신부님, 꿈사리공동체와 북한에 함께 가요!



정현희 스텔라 수녀

—
살레시오수녀회,
무연고 탈북청소년 그룹홈 <꿈사리공동체> 시설장

나는 서울 토박이다. 수녀원 입회 전에는 차도녀(차
가운 도시 여자)였다. 지금은 순박하고 훈훈한 따시녀
(따뜻한 시골 여자)로 변모되었다고 감히 자부한다. 꿈
곰이 생각해 보면 24년 수도 생활이, 살레시오회 수녀
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청소년들과 함께 산 덕분이
리라.

나는 7년째 세상에서 유일하게
갈 수 없는 나라, 북한에서 온 소
녀들 5~6명과 나를 비롯해 2명의

수녀들이 한 가족이 되어 꿈사리공동체(꿈과 사랑의
나눔자리)라는 그룹홈에서 대안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다.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 여성과
탈북청소년의 입국이 급격히 증가
하면서, 우리 수녀회는 무연고 탈북
청소년들의 안정적 남한 정착과 건
강한 자립을 돈보스코 예방교육을
통해 돕고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꿈사리공동체 그룹홈 가족



처음에는 마자렐로센터에서 남북한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이상적인 남북한 통합교육을 꿈꾸었다. 그
러나 이념과 체제가 너무도 다른 환경에서 오는 간극
은 탈북 과정에서 겪은 상처와 아픔을 제대로 추스르
지도 못한 탈북청소년들에게 깊이를 알 수 없는 두려
움의 강이었다.

탈북청소년들에게 그 두려움의 강을 건널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품게 할 공간은 바로, 천노엘 신부님(성
골롬반외방선교회)이 우리나라 최초로 시작한 발달장애
인 그룹홈과 같은 작고 따뜻한 집이었다. 살레시오수녀
회는 ‘돈보스코 가족 정신’ 토대 위에 2005년, 서울 영
등포구 대림동에 그룹홈 꿈사리공동체를 시작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85명의 무연고 탈북청소년가
꿈사리공동체에서 동반을 받아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학업을 지속하여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고등
학교 학력 취득과 함께 국가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립하였다. 지금은 엄마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
로서 자신의 삶을 꽃피우며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
민국의 국민으로서 멋지게 살아가고 있다.

꿈사리공동체는 살레시오회의 고유한 교육 영성인
이성, 종교, 사랑에 바탕을 둔 3S(Study 진리, Smile 기
쁨, Service 봉사)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자기역량 강화,
학습능력 향상, 민주시민 자질 향상, 평화통일 리더십
을 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탈북청소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느님의 모
상을 닮은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시킴으로써 남한에
착한 정착을 하도록 돕고, 남북통일의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 데 평화의 씨앗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꿈사리공동체는 학령기를 놓친 만 18세 이상~24
세 미만, 사회적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무연고 탈북
청소년 대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꿈사리공동체 가족이 공부하는 그룹홈 공간

신고 시설로 운영될 수 없어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 그
러나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우리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가진 익명의 그리스도인과 신자들의 관대한
내어줌과 본당의 후원금으로 매일 기적 같은 날을 경
험하고 산다. 꿈사리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섭리는 성
골롬반외방선교회를 통해서도 매년 이루어지고 있어
이 지면을 통해 골롬반회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
사 인사를 전한다.

꿈사리공동체를 『골롬반선교』에 소개하면서 이 땅
에 가장 어둡고 소외된 곳에서 가장 아파하고 신음하
는 가난한 이들 곁에서 하느님 사랑과 희망으로 함께
머물렀던 많은 골롬반 선교사들을 기억하게 된다. 특
히 6·25전쟁 당시 돌아가시고, 포로가 되어 혹독한 고
초를 겪으신 신부님들의 기도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
시기여서 그분들께 전구를 청한다.

한반도 종전 선언이 되고 남북한 교류의 문이 활짝
열리면 나는 “북한에 가서 그룹홈을 설립하고 싶다.”고
하신 천노엘 신부님을 모시고 가장 가난한 마을에 가
서 작고 따뜻한 제2, 제3의 꿈사리공동체를 만들고 싶
다. 그때 만날 북한 젊은이들에게 “젊다는 이유만으로
사랑받기에 충분하다.”라는 돈보스코 성인의 말씀을
매일 귓속말로 조용히 들려주는 꿈을 꾸다. ✠

“끝까지, 함께”하시는 주님

강미진 데레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신으로 탈북하여 2010년에 한국에 왔다. 현재 데일리NK 기자로 일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강미진의 북한 시장 돋보기>를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는 「북한 친구를 추가하겠습니까?」, 「남북교류협력 새로운 길을 찾다」가 있다.

<강미진의 북한 시장 돋보기>
youtube.com/channel/
UC3PsoaPseBdZIU7yB10C8Xw



유튜브 방송을 통해 북한 여성들이 쓰는 화장품을 설명하는 필자

“우리는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드리지 못하지만, 한 가지만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연결된 신앙의 끈을 놓지 않으면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영원한도움의성모수도회 이선중·오혜정 수녀님이 저에게 들려준 이 말에서처럼 “끝까지,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두 분과 저를 환영해 준 천주교에 감사합니다.

저는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북한에서 살 때 탈북을 앞둔 어느 날 처음 들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불안한 마음이 들어 점을 잘 본다는 여성을 찾았는데, 그가 저에게 “인간의 힘으로 100% 해결할 순 없지만, 정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느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주체사상과 혁명정신으로 무장되어 살아왔던 저로서는 그 여성이 한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탈북하는 그 순간, 물에 빠진 사람 쪼오래기 잡듯 저는 두 손 모아 하느님께 빌고 있었습니다. 신변이 시시각각 위협해지는 낯선 땅에 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의미한 질문을 수도 없이 던지면서도 하느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저를 보면서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원에서 예비자 교리를 받을 때, 제 탈북 과정을 들으셨던 교리 선생님(권호희 벨라벳다 수녀님)이 탈북할 때 간절히 소원했던 것이 해결되었는지 제게 물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제 모녀의 탈북과 한국행 과정 순간마다 주님께서 지켜 주시고 성모님께서 보살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랑은 저의 암 치료 전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암 선고를 받은 저는 삶의 의지를 다 놓아 버렸고, 방향의 길 어귀에 발을 디뎠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망가져가는 저를 보고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신부님 수녀님들이 집에 찾아와 의지를 되찾아 주고 용기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 악성암! 얼마나 센지 한번 맛짱 뜨자. 예수님이라는 뺨이 있는 나랑 인간의 찌꺼기를 먹고사는 너와 누가 더 강한지 대결해 보자!” 하며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5년이 넘는 시간,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로 이어진 힘든 과정을 보냈고, 담당 의사는 “회복력이 빠르고, 모범 사례라고 할 정도로 치료가 잘됐다.”라고 했습니다. 저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 그분 사랑이었고, 많은 기도와 사랑을 더해 주신 모든 분의 따뜻한 ‘정’이었습니다.

힘든 치료를 받을 때마다 먼저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고 성모님께 전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치료 시작할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아픔에 비하면, 아드님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셔야 했던 성모님의 아픔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든

지 참고 견딜 수 있으니 예수님, 성모님 저를 지켜봐 주세요. 꼭 견딜 겁니다.” 했고, 끝나면 “예수님 성모님 저 잘 했죠? 예수님이 저를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했고 성모님이 보살피시니 불안도 도망간 것 같습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꼭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삶 전체가 신앙생활의 연속이었기에 한국 정착 과정 매 순간은 주시는 사랑에 대한 감사의 시간이었고, 감사의 열매가 커갈수록 저도 성숙해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사진 제공: 강미진 기자

북한에 고향을 둔 저로서는 한반도 화해가 특별히 중요합니다. 남북한 갈등이 심각해질 때면 더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민족의 화해가 가져올 큰 혜택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향후 큰 영향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확신으로 저는 방송과 대학 강의, 세미나를 통해 화해의 길잡이, 안내자 역할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민족의 화해와 화합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한반도의 화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 삶을 화해와 화합에 잘 녹아들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화해와 단합이 직장과 공동체로 확산하고, 나아가서 국가의 화해와 단합을 이루게 하여 마침내는 남과 북 우리 모두의 화해와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제 발에 등불, 저의 길에 빛 (시편 119,105)

김경화 요안나

아득한 57년 전 내가 태어난 고향, 유년 시절과 소녀 시절의 낭만적인 추억도 내가 걸은 정다운 골목길도 내가 남긴 발자국도 뒤로한 채, 살얼음 낀 두만강을 건너 내디딘 중국에서의 타향살이. 경찰에게 쫓기는 삶이 더는 싫어서 목숨 걸고 선택한 한국행은 또 다른 삶의 흔적을 남기는 길이 되었다. 큰 기대와 부풀어 오르는 꿈을 안고 찾아온 한국인데, 생각했던 것이 허망한 현실임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먼 곳으로 와 버렸고 불안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었다. 하나원에서 6개월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받은 정착금 대부분을 브로커 비용으로 주고 남은 50만 원을 손에 쥔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스스로 속삭이고 있었다.

그런데 한편으로, 내 주먹과 건강하진 않아도 아프지 않은 몸이 내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다. 몸으로 부딪히면서 너의 빈 주먹을 채우라고... 열심히 살아야 했기에 나는 일을 찾아 나섰고 김밥 가게에 취직할 수 있었다. 사람 좋은 성실한 사장님을 만나 10년 가까이 헬수도 없는 김밥을 말면서 어느덧 눈 감고도 만들 만큼 고수가 되었다. 10대부터 80대까지 아우르는 손님들과 매일 마주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내 인생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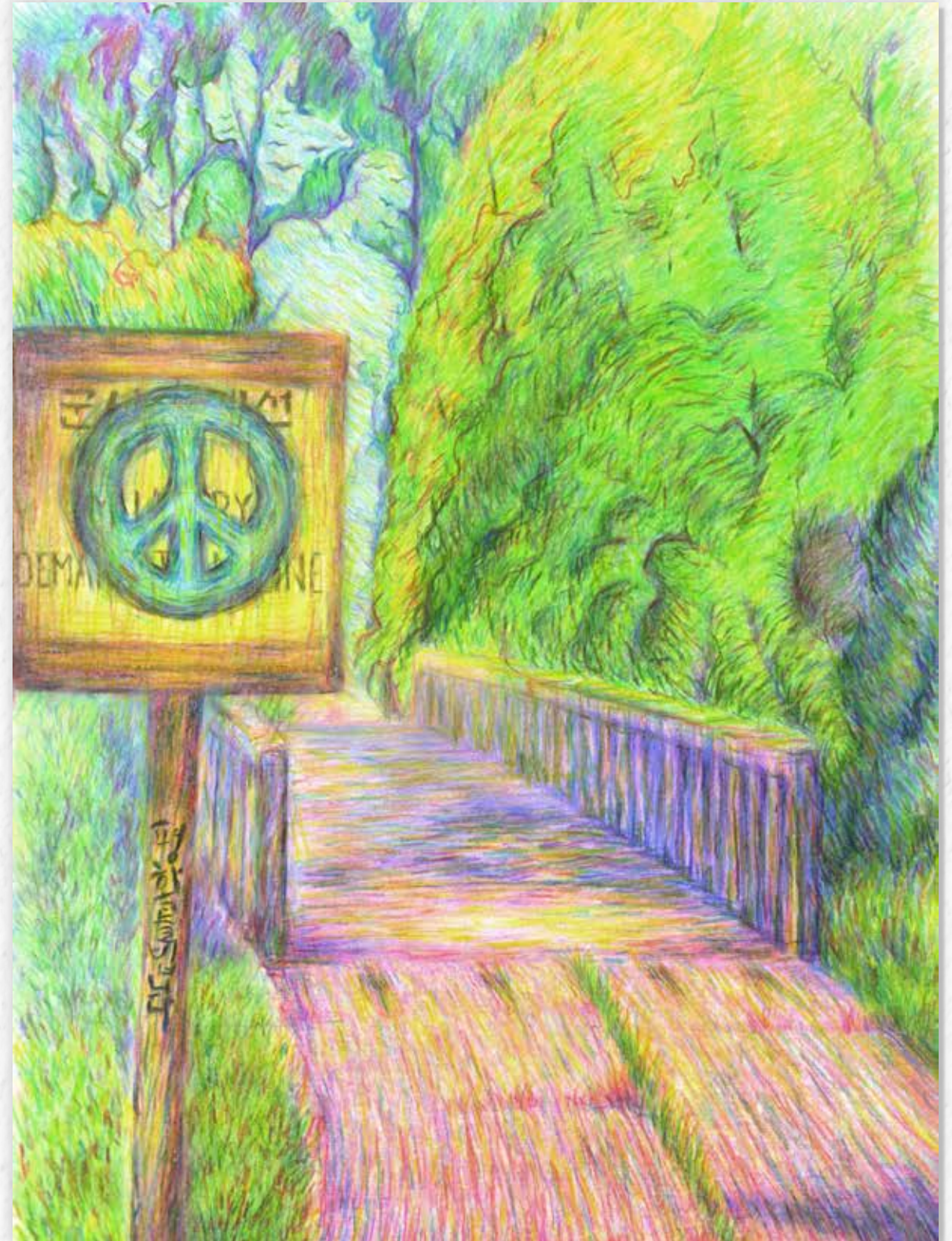
중착점이어야 하는 한국을 조금씩 알아 갔다. 민족은 같어도 문화와 언어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 앞에서 무지한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고, 많은 책을 읽으면서 몰랐던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배웠다. 무언가를 배워가고 알아 간다는 것은 우리 탈북자들에게는 낯설고 물선 타향 같은 한국에서 살아갈 지혜이다.

북한 사람이 아닌 한국 사람으로 살아온 11년 세월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길이었다. 강산도 변한다는 한국에서의 세월, 인간이 행복을 찾아누리는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찾아 몸부림치면서 힘겹게 살아온 나와 의 싸움 길이었다. 어쩌면 그 시간은 내 인생의 자서전 절반에 담겨 있을지 모른다. 오늘도 나는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자서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나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여 또 새로운 한 페이지를 넘긴다.

힘들었던 삶에서 신앙은 큰 언덕이 되어 주었다. 비록 내세울 것도 보잘 것도 없는 삶이지만, 충분히 수고했기에 “애써줘서 고맙다”는 위로가 그리운 날에 주님의 평화 안에서 위안을 받고 용기를 얻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자비와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로 시작하는 아침이 행복했고, 그 위로와 함께 열심히 일한 하루를 마침 기도로 마무리하는 생활을 통하여 나는 더욱 삶에 충실하며 더 큰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지금도 이 글을 쓰며 주님께 기도드린다. “주님, 제 뜻대로가 아니라 저의 모든 일이 당신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사진 제공: 김경화

『골롬반선교』 청탁 원고



〈한반도 평화〉, 안재선 제이슨 신부, 2021년, 종이에 색연필, 25×35cm

그 빛으로 말미암아

류선종 안드레아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2017년 사제서품을 받고 그해 10월 대만에 파견되었다.
현재 신주교구 터우펀 본당에서 주임신부로 사목하면서
이주민 사목도 겸하고 있다.

저는 2019년 1월, 이곳 터우펀(頭份) 본당에 왔습니다. 대만에서 발령받은 첫 소임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에 서툴렀습니다. 중국어 또한 부족해서 미사를 집전하기 전에 아주 긴 시간 동안 강론을 준비하고 기도문 읽는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반년 동안은 차분히 적응하는 기간으로 보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속 편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본당에 여러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당 지붕이 무너지고 교우들 사이에 불화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을 가장 무겁게 했던 일은 본당에 십여 명의 어르신들이 보름 간격으로 돌아가신 일이었습니다.

대만에서는 겨울에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기는 하지만, 마침 제가 부임한 그해 유독 많은 분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물론 제 탓은 아니지만 제가 부임하자마자 계속 부고를 접하니 본당 신부로서 착잡하고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농담조로 “신부는 병자를 살리는 신부와 하느님께로 잘 보내드리신 신부가 있어.”라고 했던 말이 기억나면서 ‘나는 후자에 속하는가?’ 하는 자조 섞인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장례미사를 집전하는 것도 고되었습니다. 대만에는 불교와 도교 신자들이 많은데, 이곳 풍속에 맞게 천주교의 장례 절차 안으로 49재 개념을 차용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지에 가기 전 장례미사를 드리고

필자(맨 앞 가운데)는 매주 본당에서 이주민들을 위해 영어미사를 봉헌한다.



선종한 어르신을 위해 기도하는 류선종 신부와 교우들. 천주교 전례 안에 대만 장례 문화가 들어온 모습이다.

고별식을 진행하는 한국과 달리, 고인이 돌아가시고 난 후 7주 동안 매주 한 번 혹은 7일 연속으로 고인을 모신 곳에 가서 미사를 드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장례 의식을 주관하는 사제 입장에서는 장례가 한꺼번에 발생하면 매일 위령미사를 드리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 두 달 정도 거의 매일 위령미사를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제의에서 향내가 가실 날이 없었던 날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처음 발령을 받아 고인 및 고인의 가족들과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미사를 봉헌하는 것도 심적으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가족들에게 고인에 관해 물었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한 가족을 위해 여러 차례 미사를 집전하며 얻는 은총도 있습니다. 매일 혹은 매주 함께 모여 고인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안에서 연민의 정이 싹트고 연대 의식이 생겨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장지에서 돌아오면서 진심 어린 인사를 주고받는 가족들을 보노라면, 그 얼굴에서 평화의 기운을 느끼게 될 때 비로소 “한 분의 영혼을 하느님께 잘 보내드렸으니 이제 이분들은 그 힘으로 다시 잘 살아가실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작가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주는 공포와 슬픔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기에, 죽음을 잘 받

아들이고 잘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 삶이 온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으로 점철되어 버리고 맙니다. 죽음에 잠식된 삶, 죽음의 불안으로부터 도망치듯 사는 삶은 하느님께서 주신 고유한 삶의 의미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의 징표를 받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비록 심적으로 고될지라도 긴 장례 절차를 통해 고인의 가족들이 죽음으로부터 삶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제가 동반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파스가 신비,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묵상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린 지난 2년 시간에 우리 삶은 어찌면 장례식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겨우겨우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모두의 얼굴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로 인한 피로감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신앙인에게 죽음은 종결이 아니라 부활의 삶으로 건너감이기에 우리는 죽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 잘 보낼 수 있습니다. 부활의 희망을 가슴에 품고 공포로 짓눌린 서로를 위로하며 언젠가 모든 시련과 공포를 극복하고 살아낼 우리 고유한 삶을 희망하며 이 시기를 잘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아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과 사랑이 여러분 마음을 환히 비추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공허와 공포 속에서 평화와 안식을 찾기를 기도합니다. ✠

사복음서 산책 ③

루카 복음서

모든 이를 위한 기쁜 소식



정진만 안젤로 신부

천주교 수원교구, 독일 보훔 대학교에서 <마태오복음>을 주제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수원가톨릭대학교 교수로서 <공관복음>, <가톨릭 서간>, <성경 희랍어>를 가르치고 있다.



출처: British Library Online Gallery

<성 루카 복음서> | 린디스파른 복음서 137b | 34x25cm
영국 대영 박물관 소장

루카 복음서와 사도행전

복음서 정경 목록에서 세 번째에 위치한 루카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을 못 받

다가 1950년 이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출발점에는 루카 복음서의 저자가 당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승 자료를 편집하여 집필하였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루카 복음서의 저자는 역사가이자 신학자였습니다.

루카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점에서 두드러집니다. 마태오 복음서와 함께 예수 탄생 및 유년 사화(1-2장)를 전하고, 마르코 복음서에 비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9,51-19,28)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루카 복음서의 저자가 복음서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특별합니다. 루카 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연속되는 '하나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루카 복음서의 독자

루카 복음서 저자는 서문(머리말)이라는 문학 양식을 사용하였는데(1,1-4). 이는 루카 복음서가 헬레니즘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서문에서는 집필 배경 곧 주제, 자료 전승 경위 및 작성 방법, 대상, 집필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루카 복음서는 '테오필로스'에게 헌정된 문헌이었습

니다. '하느님의 친구' 혹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뜻하는 테오필로스는 저자가 루카 복음과 사도행전을 집필할 수 있도록 지원한 후원자였습니다. '존귀하신'(1,3) 혹은 '귀하'(1,4)라는 표현에서 그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사도 23,26; 24,3; 26,25). 그는 아마도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배운 가르침에 대한 확신을 간절히 원했던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추정합니다. 루카 복음서 저자는 테오필로스가 배운 복음 내용이 참되고 진실하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서문에 그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해서 독자가 오직 테오필로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테오필로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지금까지 알려진 역사적 증거 자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루카 복음서는 광범위한 독자층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바오로의 선교 여행 지역에서 살던 이방계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음 선포

가난한 이들을 위한 기쁜 소식의 선포는 구약 예언자들의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루카 복음서 저자는 이사야 예언자의 종말론적 메시지에 대한 기다림을 바탕으로(이사 26,19; 29,18; 35-5-6; 61,1) 예수의 사명과 선교 방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7,22-23). 루카에 의하면, 예수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파견된 메시아였습니다.

루카 복음에 언급된 "가난한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사야서 61장에 따르면, "잡혀간 이들", "눈먼 이들", "억압받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자신을 보호할 능력

일상 안에서 복음을 더 깊이 맛들이기 위하여 <정진만 신부의 사복음서 산책>을 연재합니다. 1편 <마태오 복음서>, 2편 <마르코 복음서>는 본회 홈페이지 『골롬반선교』 118호, 119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나자렛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14세기 프레스코화, 비소키 데카니 수도원, 세르비아 코소보
출처: www.decani.org

이 없고 모든 기대와 희망을 저버렸기에 오직 하느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윤리적으로 타락한 죄인을 넘어서 사회의 모든 특권으로부터 배제된 모든 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은 예수가 파견된 이유와 목적을 설명합니다. 버림받고 천대받고 잊힌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비로운 하느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복음사가였던 루카는 사회·경제·종교적으로 소외당한 이들에게 다가가 하느님 사랑을 전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모든 이를 위한 기쁜 소식

성령의 힘으로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는 비천한 이를 높이시고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하느님을 찬미하였습니다(1,52-53). 이 '마리아의 노래'에서 볼 수 있듯이, 구원은 부유한 자, 권력을 가진 자, 교만한 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춘 이, 곧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느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쳐 준비되었고, 세상 모든 이를 위한 기쁜 소식의 약속은 예수를 통하여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4,21). ✠

생태적 회심으로 초대

노혜인 안나 선교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2011년 필리핀으로 파견되어 마닐라 근교 빈민 지역에서 선교했다. 2019년 한국지부로 발령받고 평신도선교사 코디네이터로 일하면서, <가톨릭기후행동>의 운영위원 겸 액션팀장으로서 지구를 돌보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는 필리핀 마닐라 퀘존시의 빈민 지역에서 작은 방을 구해 동네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았습니다. 그 길 이 제가 가야 하는 선교 방향이라 생각했기에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석양이 질 무렵, 마을 어귀에 쓰레기 봉지가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

는데, 저녁이 되기 전 금세 산처럼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주변엔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고철, 플라스틱, 비닐 등 돈이 될만한 것을 찾는 ‘피커picker’라고 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인 쓰레기는 인근 빠야마스 지역에 있는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보내졌습니다. 어느 날, 쓰레기장 바로 앞에 사는 동료 선교사와 함께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어른이고 아이들도 쓰레기 더미에 올라 재활용될 만한 것을 찾아 세척하여 팔리고 있었습니다. 지역민들 즉, 피커들은 쓰레기를 자신들의 삶을 지속하게 하는 하느님의 선물로 여긴다는 동료의 말에 가난한 이들이 지닌 삶에 대한 애착과 희망을 느꼈습니다.

2019년에 한국으로 발령받은 저는 한국교회 안에서 한 개인, 평신도, 선교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초토화 되었고, 기후위기 상황은 전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 놓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은 뭐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우연히 환경 관련 강의를 듣고 *가톨릭기후행동이 주최하는 ‘금요기후행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광화문에 모여서 피켓팅을 하는데, 처음에는 피켓에 쓸 문구를 정하고 피켓을 만드는 일도 쉽지 않았고, 죄지은 것도 아닌데 사람들 앞에서 피켓을 들

고 서있는 게 창피하고 누가 나를 알아볼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마스크가 얼굴 절반을 가려 주니 그나마 용기 내어 첫 피켓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피켓팅을 할 때면 제가 살았던 마을 어귀와 빠야마스 쓰레기 산에서 일하던 피커들이 떠오릅니다. 그 들이야말로 기후위기 최전선에서 지구를 지키고 있는 이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구 자원의 혜택을 가장 적게 누리면서도,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가난한 이들이 지구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기후변화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가뭄과 홍수, 태풍, 폭염, 폭설, 한파 등으로 가장 가난한 이들이 제일 먼저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먹거리가 고갈되어 식량 확보 전쟁 또는 기후 전쟁으로 이어져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대위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 나의 편리함이 지구 반대편 누군가를 기후 난민으로 만들 수 있고, 생물 다양성에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찬미받으소서』 제91항)기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밤낮으로 들려오는 지구의 울부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에 마음이 아파옵니다. 실현 불가능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더 빨라진 지구 평균 온도 1.5도 상승을 경고한 IPCC(유엔 기후위기 관련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 그리고 주요국의 경제적 이해를 위해 기후정의 실현을 외면한 COP26(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를 접하며 막막함을 느낍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용서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가끔 용서합니다. 지구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바로 그 환경을 파괴한다면, 그 어떤 미래도 있을 수 없습니다.”

— 프란치스코 교종 『우리 어머니인 지구』 36쪽 참조

*가톨릭기후행동: 15개 교구, 40여 개 가톨릭 단체와 400여 명의 신자가 함께 지구를 위한 행동을 실천하는 연대체



2021년 11월 6일에 있었던 ‘기후정의 세계공동행동’에 참여한 <가톨릭기후행동>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과 함께
사진 제공: 가톨릭평화신문

기후위기를 알리는 피켓을 들고 광화문으로 나갔던 작은 행동은 일상생활에서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식물을 가꾸고, 자전거를 타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더욱 꼼꼼히 분리수거를 합니다. 몇 달 전부터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육류를 줄이다가 본격적으로 채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실천뿐 아니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같은 목소리를 내는 이들과 연대하면서 더욱 많은 이가 기후행동에 동참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지구를 위한 활동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선교사에게 있어 이 시대의 필요와 그 흐름을 읽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이를 간과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편한 것, 더 효율적인 것을 소비하던 모습 또한, 반성합니다. 이런 무지했던 저를 하느님께서 인간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창조 질서 안에 존재한다고 일깨워 주시고, 생태적 회심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저를 기다려 주셨던 하느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묵묵히 가고자 합니다. “인간은 자신에게서 벗어나 하느님, 타인, 모든 피조물과 친교를 이루어 살면서 관계를 맺을수록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며 거룩해집니다”(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제240항).

“건강한 지구, 건강한 사람들”
청원 서명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진요한 신부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요비 욥 주교
서울대교구

제가 진요한 신부님을 만나고 함께 지낸 시기는 1972년 12월부터 1974년 4월 군대 입대 전까지 상봉동성당에서입니다. 당시 신부님은 상봉동성당을 지으시고 주임신부로 사목하셨고 저는 신학과 1학년 신학생이었습니다. 처음 뵈신 신부님은 과묵하고 무뎡뎡한 분이라는 인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신학생이라고 인사드렸을 때 크게 반가워하시거나 친절하게 대해주시기보다는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셨고, 이후에도 늘 저를 유심히 바라보아 주셨습니다.

방학 때, 본당 첫영성체 교리에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하여 많이 떠들고 교리실이 난장판이 되곤 했는데 제가 통제를 못 하고 찢찢매고 있을 때 신부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해 빠져서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어요?”라고 질책하셨던 것 같습니다. 방학이 끝나면 신학생들은 본당 신부님이 써주는 방학 생활 증명서(테스티모니움)를 갖고 신학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진 신부님은 저에게 테스티모니움을 써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신부님이 나는 사제성소가 없다고 판단하신 걸까?’ 하며 많이 불안해하였습니다. 한 달이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으니 신학교에서

도 어떻게 된 건지 물었습니다. 저는 며칠간 고민하다가 주일에 외출하여 진 신부님을 찾아뵙고 ‘저에 대한 신부님의 평가를 진지하게 물으려 사제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진 신부님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당신이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아요?”라고 하시며 곧 학장 신부님을 찾아뵙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신부님은 신학교에 오셔서 학장님을 만나셨고 이로써 제 테스티모니움은 잘 완료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제가 신학교에서 봉직할 때 아일랜드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콜롬반회 총본부였던 달간파크에서 진요한 신부님을 만나뵈 수 있었습니다. 초로의 노신사가 된 신부님은 “대신학교에서 영성지도를 하신다구요! 참으로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라고 아주 깎뚝하고 정중하게 맞이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은총의 시간을 체험하였습니다! ‘아, 신학생 시절에 나를 유심히 관찰하셨었는데, 이제 교회의 사제로서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참으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당시 사제서품 50주년을 맞아 한국에 오셨을 때, 진 신부님께서 상봉동본당 교증미사 주례를 하시고 저는 신부님의 복사를 썼습니다. 축하식을 가지며 모두 함께 식사를 한 것이 마지막으로 신부님을 뵈신 시간이 되었습니다.

회고하던대 진요한 신부님은 주님의 충실한 종이자 복음의 일꾼으로서 전쟁 후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 한국교회 신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사목한 참 목자

요 선교사였습니다! 성사 집전에 충실하고 신자분들의 영적 선익을 위해 매우 헌신적인 사목자였습니다! 신부님과 상봉동성당에서 함께한 시절이 주님께서 안

배해 주신 은총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며 신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진요한 신부님께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주소서. 아멘. ✠

임명미 임마쿨라타 후원회원 | 동덕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인연의 은총 속에 60년에서 3년 모자란 세월을 함께해 온 진요한 신부님과 2021년 10월 8일 지상에서 작별하였습니다. 울컥하는 마음과 함께 그립고 또 그립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장학생으로 미국 유학을 앞두고 수속하던 중에 건강상 이유로 출국과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 수가 없어서 좌절하고 하향하여 휴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 고향 본당에 부임하여 사목하셨던 진요한 신부님의 신적(神的) 부성애와 만남은 성령의 은총이 충만한 삶으로 변모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요한 신부님은 1964년 가을, 제20대 주임신부로 목포시 산정동본당에 부임하셨습니다. 저는 본당 교리교사로서 교리반 학생들과 만났고, 미혼 여성들의 모임인 <소화 데레사회> 회원들과 만났고, 그렇게 신부님의 지지와 격려 안에서 교회 활동을 하며 보낸 시간은 제가 유학 따위는 잊고, ‘성소일까?’라는 마음까지 지녔던 시기였습니다.

1965년 가을학기 시작 무렵에 진요한 신부님은 저를 부르셨고, 제주도에 있는 신성여자고등학교 가정과 교사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낯선 제주도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함께해 주신 많은 콜롬반 신부님들의 배려와 하느님 은총 속에 교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신성여고를 떠나 제주대 교수를 시작으로 2006년 동덕여대를 퇴임하기까지 40여 년 세월을 주님 축복 속에 살았습니다. 진요한 신부님을 비롯해 콜롬반 신부님의 은덕을 그분들 생전에 보은하지 못한 회한과 함께 평생 잊지 못합니다. 4년 전쯤 진 신부님께서 뇌 수술을 받

으셨다는 소식을 다른 이를 통해 전해 듣고 놀란 마음에 다소나마 회복에 도움이 되시도록 미미한 금액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께서 저를 찾으시는 전화를 몇 번이나 하셨는데 당시 전화 연결이 안 되었던 탓에 10년 만에 통화가 되자 무척 고마워하시며 “덕분에 안경을 새로 바꾸었노라” 하시면서 “이제 보내지 말라” 하시던 신부님! 제가 신부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겸손하고 또 겸손하신 신부님께서 “어떻게 갚아야 하느냐”며 마음을 전하시고자 이제 한글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다 하시면서 손수 써서 보내주신 카드를 마지막으로.....

2008년 흑산도본당 설립 50주년에 초청을 받고 진 신부님께서 한국에 나오셨을 때, 20대 이후 저의 영적 성장을 이끌어 주시고 지켜보아 주신 콜롬반회 선교사들의 부성적 영성에 감사하고 보은하는 의미에서 “아일랜드 콜롬반회 은퇴 신부님들 생활 보조 기금으로 사용하시도록 미미하지만 5억 원을 기증하겠습니다”란 약속을 진요한 신부님 생전에 지켜 드리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신부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에 대한 보은은 신부님 가셨어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한국인들을 위하여 고생 많이 하신 신부님, 감사드립니다(100억 번). 이제 평화로움 속에 편히 쉬십시오. ✠

진요한 신부와 산정동본당 친구들과 함께.
진요한 신부의 원편이 필자
사진 제공: 임명미 교수



선교의 열매

토마스 머피 Thomas Murphy 신부
번역·배영재 요세피나

아일랜드 출신으로 사제수품 다음해인 1974년에 한국으로 파견되었다. 한국 이름은 진 토마스. 광주대교구 흑산도·강진, 부산교구 연산 동 본당에서 활동했다. 이후 대만에 파견되었고, 2006년부터 6년간 골롬반회 총장을 지냈으며 재임 중에 총본부를 홍콩으로 이전했다. 현재는 중국에서 일하고 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인 9월 20일, 미사를 드린 직후 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이 축일이 돌아올 때면 지난날 한국에서 살며 쌓았던 풍요롭고 소중한 추억이 떠오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강렬한 기억은 1974년 서울에서 보낸 첫 주말, 故 지학순 다니엘 주교(1921-1993)가 체포당하여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입니다. 초대 원주교구장 지 주교가 구속되자 전국에서 수천 명의 가톨릭 신자들과 성직자들은 이에 항의하며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고, 서울 명동대성당에 모여 시국선언과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1974년에 구속된 지학순 주교는 이듬해에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으나 2020년에야 재심을 거쳐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1974년 7월 6일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고 지학순 주교(맨 왼쪽)는 이날 명동대성당에서 양심선언을 하였고, 8월에 다시 투옥되었다. 사진 제공: 한국교회사연구소, 『김수환』, 2002.

당시 한국에 갓 파견된 저와 동료 선교사들은 한국어도 모르는 데다가 한국 친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후 사정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였지만 항의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비록 부족함이 많고 문화 차이가 존재했지만, 저는 그날 다른 문화와 엄청난 인연을 맺었고 그 자리,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투쟁 속에 곧바로 일치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때 경험은 골롬반 선교사로서 헌신하고자 하는 저를 계속해서 탄탄하게 지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선교했을 때 사진 제공: 토마스 머피 신부

한국에서 보낸 4년 동안 저는 낯선 문화에 완전히 몰입되어 새롭게 눈뜨게 되었고, 제 세계관이 한층 더 깊어졌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참으로 풍요로웠으며, 한국 사람들은 삶 속에서 가족 및 친구들과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고, 죽음마저도 일상생활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신앙과 영성, 종교를 표현하는 감수성은 아주 풍부하고 깊었습니다.

저는 창덕궁 후원을 비롯한 유명 사적지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한국인이 지나온 유구한 역사를 배우는 기회를 가졌고, 제 고향 아일랜드의 켈트 문화만큼이나 오래된 한국 문화에 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문화'를 이해하는 폭을 넓혀 가는 작업이 시작되었고, 이 문화 배움은 진행 중입니다.

한국어 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더 복잡한 한자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자 수업은 매일 한 시간씩 하는 선택 과목이라서 굳이 듣지 않아도 되었지만, 저는 다행히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과 한자를 함께 배우면서 한국과 중국 간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통찰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중국과 협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 세계 여러 나라들로서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한국과 중국의 역학 관계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은 매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성경, 기도, 용서, 구원에 관해 배우려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뿌리내린 신앙의 깊이에 대해 진지한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가톨릭 신앙이 뿌리 깊이 자리잡은 아일랜드 사회 속에서 신앙적으로 지지를 받으며 자란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연시해 왔고, 잘 알고 있다고 여겼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사람들을 한국에 와서야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선사하는 바

가 무엇인지를 선교사인 저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저를 한국으로 이끈 것은 골롬반 선교회의 정신이었고, 그곳에서 만난 동료 선교사들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훌륭한 골롬반 선교사들과 만나는 특권을 누렸고, 약점과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선교 사명에 헌신하는 그들의 모습은 저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한국에서 한자 공부에 시간을 투자한 덕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초기 한국교회 신자들이 가톨릭 신앙을 처음 접한 곳이기도 합니다. 시절이 변해 요즘 한국과 중국에 있는 골롬반 선교사들은 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파견된 나라뿐만 아니라 더 널리 나눌 방법을 찾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1974년 당시에는 꿈도 못 꾸본 일이 현실이 되었다는 게 흥미로울 따름입니다. ✠



문의

CMS 자동이체 신청, 내용 변경, 주소 변경, 우편물 수신을 원치 않는 분은 해당 지역 후원회로 연락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협조 요청

그동안 자체 양식으로 발급한 영수증을 받으셨던 회원 중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분들은 미리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 등록되면, 회원님께서 빠르고 편리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하고,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홈페이지(www.columban.or.kr) 후원회 게시판

• 서울, 경기, 충청, 강원지역 서울 후원회 ☎ 02-929-2977 | 팩스 : 02-929-1366
이메일 : korseoulfund@columban.or.kr
• 전라, 경상, 제주지역 광주 후원회 ☎ 062-371-5823 | 팩스 : 062-371-5824
이메일 : korkwangjufund@columban.or.kr

미사 봉헌

미사 봉헌을 원하시는 회원은(서울 후원회 02-929-2977)로 연락해 주세요.

후원회 월례미사

2021년 12월 -
2022년 4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장 소	문 의
서울	3일	7일	4일	4일	1일	명동 가톨릭회관	02-929-2977
인천	14일	11일	8일	8일	12일	부평2동 성당	032-529-9621
원주	8일	-	9일	9일	13일	원동성당 만남의 방	033-765-3350
안산	10일	14일	11일	11일	8일	원곡동 성당	031-491-2064
하안	24일	28일	25일	25일	22일	하안 성당	02-899-7328
목포	-	25일	22일	22일	26일	대성동 성당	061-276-9218
순천	-	26일	23일	23일	27일	저전동 성당	061-741-8285
전주	-	27일	24일	24일	28일	덕진 성당	063-272-5302
광주	-	28일	25일	25일	29일	광주 골롬반 선교회관	062-371-5823
부산	9일	-	-	10일	-	용호동 성당	051-625-3382
제주	22일	19일	16일	16일	20일	제주 골롬반 사제관	064-711-2471
	-	18일	-	15일	-	서귀 북자 성당	064-733-5523
	21일	-	15일	-	19일	서귀포 성당	064-762-3444

• 코로나19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미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미사 참석 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 광주후원회 12월 미사는 없습니다.

• 원주후원회 1월 미사는 없습니다. 3월 미사는 대통령 선거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및 CMS 출금이체 동의서

수납 기관명 : 재단법인 천주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전화번호 : 02-929-2977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성명

세례명

교구 :

(본당)

주소

전화

휴대전화

E-Mail

@

기부금영수증(실기부자로만 발급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등록

☐

우편 요청

☐

영수증 거부

발급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록해주세요

(

-

)

선교 잡지 (3, 9, 12월 발송) 수신

☐

원함

☐

거절

전달 사항

월정액

원

☐

회비납입방법

☐

CMS 자동이체(은행 방문 없이 자동이체 가능)

기타 납입

☐

온라인 송금

☐

지로

※ CMS 자동이체 신청 (아래 모든 항목 기재 및 정보제공에 동의 필수)

출금 은행명

출금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법정생년월일

(주민번호 앞6자리)

출금일

☐

5

☐

10

☐

15

☐

20

☐

25

☐

3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및 이용 동의일부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후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후원 계좌

후원회원 여러분이 바로
선교의 뿌리입니다.

NH농협	179300-51-002198	우체국	014001-01-001544	KB국민	016737-04-001752
광주	200-107-332094	KEB하나	287-910011-22005	부산	070-01-022777-8
신한	140-007-742530	우리	1006-501-265347	IBK기업	012-056490-01-019
SC제일	225-20-397949	대구	004-10-004189	예금주:	천주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미사 봉헌

미사 봉헌을 원하시는 회원은 서울 후원회(02-929-2977)로 연락해 주세요.

한국지부 신학원장에 김영인 신부, 부원장에 곤잘로 신부 부임

11월 23일, 김영인 그레고리오 신부가 임기를 마친 오기 백 다니엘 신부에 이어 신학원장에 부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세오 곤잘로 신부가 부원장으로서 함께 신학생 양성을 담당합니다. 2011년에 사제품을 받은 김영인 신부는 페루 고산지대인 쿠스코 아나오카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살다가 2020년에 한국지부로 발령받았습니다. 칠레 출신인 곤잘로 신부는 2017년에 한국에 와서 본당사목과 전남 지역에 사는 이주 노동자, 다문화가정을 위한 활동 등을 해왔습니다.



신학원장 김영인 신부



부원장 곤잘로 신부

신학원 소식

9월 4일, 골롬반 신학원 성당에서 봉헌한 2학기 개강미사에서 신학생 이우빈 라우렌시오, 노승준 요한바오로가 프로베이션(Probation)을 시작하는 예식을 갖고 2년 동안의 수련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각각 대전교구, 청주교구 출신으로 2019년, 2020년에 입회하였습니다. 또한, 김진욱 사도 요한 신학생은 필리핀 아테네오 대학교에 진학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에 온라인으로 현지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씩 정진해 가는 신학생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기를 보내는 이우빈(왼쪽), 노승준 신학생



제11차 해외선교의 날 행사

해외선교의 날을 맞아 10월 1일, 가톨릭평화방송TV 유튜브 채널에서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선교사'를 주제로 선교사들의 선교 나눔을 생방송으로 전했습니다. 이날, 필리핀에서 사목하는 골롬반회 지광규 신부와 대만에서 선교하는 배시현 평신도선교사가 현지에서 영상으로 진솔한 나눔을 들려 주어 시청자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국교회의 해외선교를 되돌아보는 해외선교의 날은 전교의 달 첫 토요일에 지냅니다.

방송 보기: youtu.be/YkRzuyqcUBs



코로나로 지역이 봉쇄되었을 때 본당 관할 구역 내 공소에서 음식과 생필품을 나누는 모습 사진 제공: 지광규 신부(맨 오른쪽)

엠마우스 공동체 40주년

10월 27일, 광주광역시 소재 엠마우스 복지관에서 4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천노엘 신부는 1981년 발달 장애인 1명, 봉사자 1명과 광주 시내 주택에 입주해 한국 최초로 그룹홈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회의적 시선이 많았으나 엠마우스 공동체의 노력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시스템이 전국에 확산하였습니다. 천 신부는 기념식에서 "하느님 섭리에 의존하며 엠마우스의 길을 걸었습니다. 동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기념식 영상 보기: youtube.com/watch?v=rHXyGq_gZLY
사진 제공: 사회복지법인 무지개공동체

이경자 평신도선교사 · 지원사제 최우주 신부 귀국

이경자 크리스티나 선교사가 한국으로 발령을 받았습다.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였고, 2017년 아일랜드에 파견돼 이주민과 난민을 위한 일을 했습니다. 또한, 골롬반회 지원사제로 9년 동안 해외에서 선교했던 최우주 필립보 신부가 임기를 마치고 서울대교구로 복귀하였습니다. 최 신부는 2012년 페루에 파견되어 리마에서 도시빈민 사목을 하다가 2019년에 미국으로 발령받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오가며 본당사목과 이민자들을 돕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사진 제공: 최우주 신부(왼쪽 맨 위)

평화사목국 소식

남자장상협의회 민족화해전문위원회 '화해·평화 월례미사'를 11월 15일, 골롬반선교센터에서 봉헌하였습니다. 이 미사는 평화사목을 하는 수도회, 사도생활단, 하나원 교육생 가정문화체험 봉사자, 골롬반 후원회원,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만나 봉헌해 왔으나,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함께 드린 미사였습니다(사진). 또한, 남승원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왼쪽에서 두 번째)는 9월,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자문회의 제20기 종교·인도협력분과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팔순 맞은 안광훈 신부, 축하미사 봉헌과 자서전 출간

12월 14일, 명동대성당에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주최로 안광훈 로벨도 신부의 팔순 축하미사를 봉헌할 예정입니다. 이날, 자서전 『성자와 죄수 Of Saints and Sinners』 출판 기념회도 열립니다. 25살에 한국에 와서 가난과 불의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평생 헌신해온 그는 현재 삼양주민연대 이사장으로서 주민들의 자치 활동과 도시재생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출신인 안광훈 신부는 2020년 정부로부터 특별공로로 대한민국 국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사진).



사진 제공: 법무부

성 골롬반 성당인 임당동본당 100주년 감사미사와 간 토마스 신부 석상 축복식



11월 20일, 춘천교구 임당동성당(주임 고봉연 신부)에서 김주영 시몬 주교 주례로 본당 설립 100주년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1921년 12월에 설립된 임당동본당은 1940년 도 야고보 신부부터 지 벨라도, 한 프란치스코, 간 토마스, 표 파트리치오, 강 디오니시오, 정 레오, 유 월터, 명 프란치스코, 임 요한, 지 요한 신부까지 골롬반회 사제들이 33년간 사목한 곳입니다. 간 토마스 신부(1951~1954년 재임)는 성전 건립 중 과로로 선종해 근처 갈바리 의원 구내에 안장되었습니다. 미사 전, 간 토마스 신부 석상 축복식도 마련되었습니다(사진).



진요한 신부 선종

진요한(Sean Brazil) 신부가 10월 8일 아일랜드 달간파크에서 선종했습니다(달간파크 성 골롬반 묘원 안장). 1932년 아일랜드에서 출생한 진 신부는 1954년 사제품을 받고 이듬해 한국에 와서 흑산도성당을 비롯해 여러 본당과 공소를 짓고, 한국교회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관련 글: 22쪽~2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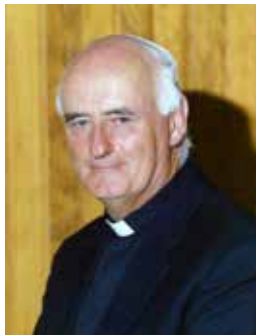
1956~1969년 광주대교구 산정동·북교동·흑산도·소록도 본당

1970~1978년 서울대교구 상봉동·서울대교구 창동 본당

1978~1982년 수원교구 성남 단대동성당 **1983~1989년** 아일랜드

1990~2004년 미국 캘리포니아 한인 순교자성당 주임 및 미국지부 성소, 선교 교육

2004~2021년 달간파크 요양원 스태프



금경축·회경축을 축하합니다

한국에서 선교했고 지금은 고향 아일랜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 명의 사제가 올해 서품 회년을 맞았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제서품 50주년

호반(Brendan Hoban) 신부

1971년 사제품을 받고 그해 한국으로 파견되어 원주교구 영월·문막, 서울대교구 상봉동·사당동, 인천교구 오정동, 부산교구 만덕동에서 본당사목을 하였고, 노동사목과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단주사목을 하였습니다. 이후 호주에서 JPIC 활동과 중독자 교육·상담 등을 했고, 현재 아일랜드에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사제서품 60주년

도 미카엘(Michael Dodd) 신부



1961년 12월 21일 사제서품 후 이듬해 한국에 파견되었습니다. 광주대교구 진도·목포 경동·광주시 월산동·목포 산정동, 서울대교구 상계동·공덕동 성당에서 사목했으며, 청년 JOC 지도신부 활동을 했고, 1980년에 한국지부 지부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나 데릭(Derek Harris) 신부



도 미카엘 신부와 나란히 사제품을 받고 함께 와서 강원도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춘천교구 소양로·인제·죽림동·철원 김화·효자동·양덕원, 원주교구 평창, 인천교구 심곡동에서 본당사목을 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 10년간 미국에서 한인 교포사목을 하였습니다.

골롬반 선교

2021년 겨울호 vol.120



표지 이야기

10월 29일, 이탈리아 로마 산티냐시오 성당에서 통일부가 주최한 전시회 <철조망, 평화가 되다>에 소개된 이 작품은 DMZ의 녹슨 철조망으로 십자가 136개를 만들어 한반도를 형상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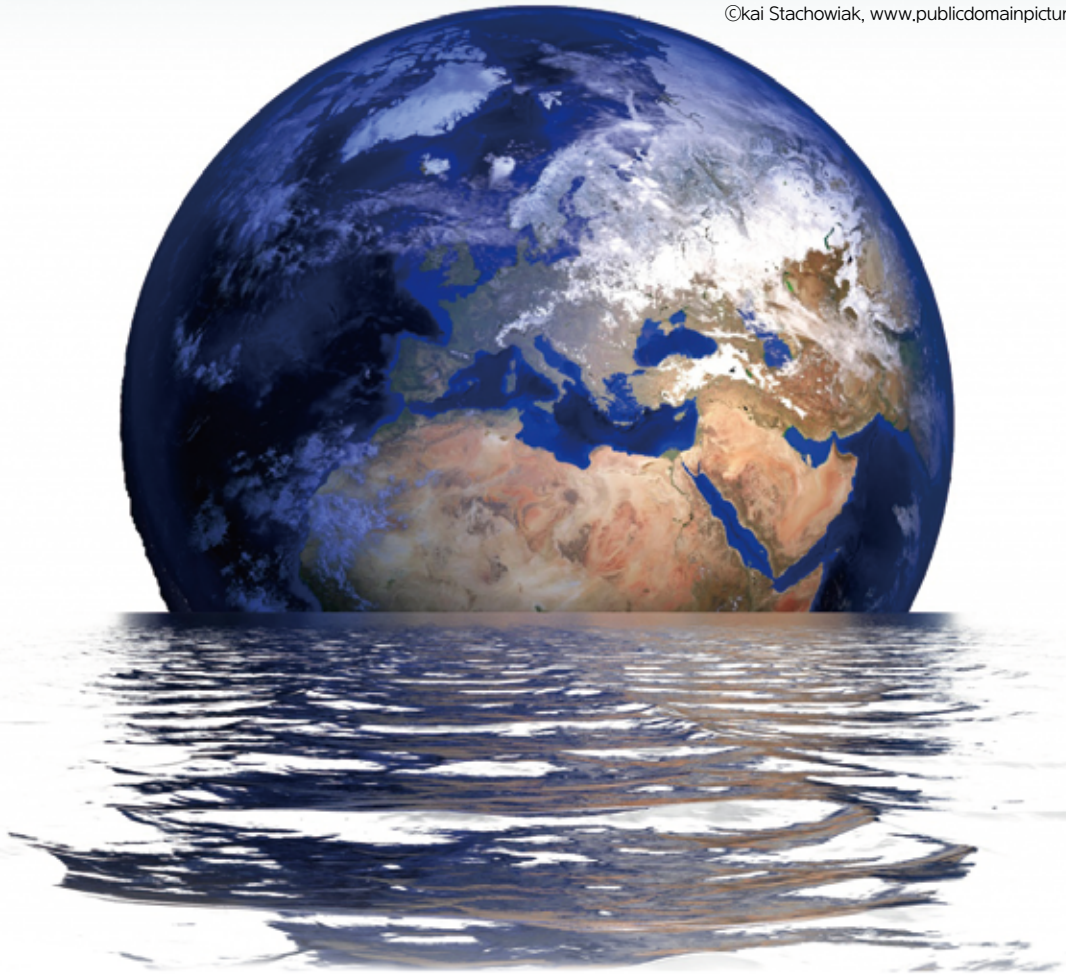
사진 제공: 청와대

편집실 Tel. 02-927-2705
kormagazine@columban.or.kr

후원회 Tel. 02-929-2977
Fax. 02-929-1366
korseoulfund@columban.or.kr

한국지부 Tel. 02-926-1217
Fax. 02-926-0551
columban@columban.or.kr
www.columban.or.kr
www.facebook.com/columbankorea
youtube: 골롬반TV

발행일 2021년 12월 1일
발행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발행인 임영준(에이문) 신부
편집장 안인성(패트릭) 신부
편집위원 노혜인(안나) 선교사
취재편집 김소영(세실리아)
번역 배영재(요세피아)
디자인 아이디퍼런스
인쇄 동진인쇄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찬미받으소서』 제49항)에

귀 기울이고 싶지 않습니까?
골롬반회 선교사와 함께 이에 응답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초대합니다!

사제 성소 모임

때 매월 첫째 일요일 9:30~14:00

곳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한국지부
(서울 동소문동)

문의 구화 루까노 신부
010-8686-1918
korvocation@columban.or.kr

골롬반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때 매월 둘째 일요일 14:00~17:00

곳 골롬반평신도선교사 센터
(서울 동선동)

문의 노혜인 안나 선교사
010-3817-0567
clmkorea@gmail.com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때 매월 셋째 일요일 14:00~17:00

곳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서울 돈암동 수녀원

문의 이애리사 엘리사 수녀
010-5033-9302
columbankor@hanmail.net

지원사제 문의 남승원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010-9937-0901 korassocodi@columban.or.kr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02830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 전화 02-926-1217 | 팩스 02-926-0551
www.columban.or.kr